

황순원의 단편소설 「황소들」에 대한 담화 기호학적 분석*

홍정표**

【 차례 】

- I. 머리말
- II. 현상학적 접근
 - 1. 관점의 기점과 목표
 - 2. 지향과 포착
- III. 수사학적 접근
 - 1. 위치장(champ positionnel)
 - 2. 수사도식 세 단계
- IV. 맺음말

국문초록

프랑스 기호학자 자크 폰타닐이 1999년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담화 기호학을 발표하였다. 담화 기호학에서는 의식 구조를 연구하는 현상학으로의 접근을 시도하여 기호학의 지평을 넓혔다. 현상학적 접근은 의미가 지각에서 드러나는 방법과 의미를 생성하는 방식, 그리고 세계에 대한 감각적 파악을 의미 세계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황소들」은 주인공 소년 바우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의 흐름을 기술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현상학적 접근으로 살펴보았다. 수사학적 접근은 발화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면서 발화행위 이론과 직접 관련되며, 수사학의 문채(figures)와 전의(tropes)가 발화행위의 지배를 받는다. 기존의 수사학적 분석은 평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7S1A5B5A07062798)

**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면적 의미 분석으로 역동적인 관점이 부족했지만, 담화 기호학에서는 발화체와 발화 행위의 분석이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깊이 있는 입체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황소들」은 주인공 소년 바우의 시선을 통해 농민 운동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우리 신문학 사상 진지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고는 집단적 움직임에 대한 형상화를 잘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 작품을 담화 기호학의 현상학적 접근과 수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이론의 유효성과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열쇠어 : 기점, 깊이, 담화 현동태, 목표, 위치장, 위치 행위소, 장애물, 지향, 통제, 포착, 현존화.

I. 머리말

지난 세기 구조주의라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한 소쉬르(F. de Saussure)는 기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탄생을 예측하였고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다. 소쉬르는 언어활동(langage)을 랑그(langue)와 파롤(parole)로 구분하고, 보편적이고 추상적 체계인 랑그만을 연구의 독자적 대상으로 삼았다. 체계 개념은 프라하학파에 의해 구조(structure)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는데, 처음에는 언어학에서만 연구되었으나 곧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로 확장되었다.

구조주의는 기호학에서 서사 기호학과 정념 기호학을 탄생시켰다. 이것은 텍스트 바탕에 깔린 불변적인 규칙성 발견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독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텍스트 내적 구성요소를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문학 텍스트를 단순한 구조로 환원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장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텍스트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는 모습은 무시되고 배제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구조주의를 기반으로 정립된 서사 기호학과 정념 기호학은 문학적 랑그만을 연구하고 문학적 파롤에 대한 연구를 간과함으로써 구조주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담화 연구의 선구자 방브니스트(E. Benveniste)는 소쉬르의 랑그에 대

한 우위성과 파월에 대한 무관심을 구조주의의 본질적 한계로 지적하고, 추상적인 기호 체계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인 담화 현상에 대한 논의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철학자이자 해석학자 리피르(P. Ricoeur)도 언어활동의 실제 의미작용에 관해서는 랑그가 아니라 담화라는 실제 언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랑그에 대한 연구는 담화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야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담화는 랑그가 살아있는 소통행위 속으로 드러난 것, 즉 파월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1999년 풍타닐은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담화 기호학을 발표하였다.

담화 기호학에서는 의미작용 세계를 일종의 실천(praxis)¹⁾으로 간주하며, 구조에 대한 관심을 작용과 행위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였다. 그래서 이 기호학에서는 활동 중인 담화, 살아있는 담화의 관점을 택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택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기호학의 지평을 확대하였으며, 이제까지는 많이 연구되지 않은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속성의 불안정하고 생성 중인 의미작용을 탐구하였다.

「황소들」(1946)²⁾은 지주의 부당한 횡포에 대항하여 농민들이 벌이는

1) 텍스트, 형식, 소재 등 기호학적 실체들이 소환되고 선택되고 조종되고 변형되며, 특정한 발화에 의해 창조되거나 재창조되는 모든 작용을 포함함. (J. Fontanille, *Sémiotique et littérature*, PUF, 1999, p.131)

2) 「황소들」, 『황순원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2014.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소년 바우는 음력으로 스무엿새날 밤에 평소와는 다른 아버지로 인해 마음이 뒤숭숭하다. 오늘따라 날씨가 흐려 째깍이다. 바우의 짐작대로인지 안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과 헤어지고 난 후 아버지가 밖으로 나간다. 바우는 아버지가 맘이 놓이지 않아 작대기를 집어 들고 뒤를 몰래 따른다. 아버지와 느티나무에서 모인 사람들이 낱알 도둑을 잡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지만 사람들은 냇가를 건너 묵묵히 황소들처럼 줄지어 걷기만 한다. 충주로 향한 길목에서 바우는 무서웠던 충대가 떠올랐지만 꼭 참고 계속 뒤따른다. 충주가 가까워올수록 바우는 겁이 나지만 아버지를 지켜야한다는 생각뿐이다. 환한 충주의 전등 불빛이 내리 비치는 곳에서 어른들은 대기하고 10시가 되자 충주 시내의 불빛이 모두 꺼지면서 어른들은 성난 황소들처럼 산에서 내려와 거리로 돌진한다. 바우는 아버지를 찾아 충주 시내를 헤맨다. 그러다가 지주의 집 앞에서, 곡식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다가 사태의 긴박성을 깨닫고 포기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몰락한 김대통 영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집단 운동을 그리고 있다. 농민들을 순박하고 건강한 황소의 모습에 비유한 이 소설은 서정적인 감각과 날카로운 지성을 갖춘 작가 황순원(1915~2000)의 작품이다. 황순원은 여러 장르에 걸쳐서 많은 작품을 꾸준하고도 성실하게 창작한 작가로, 한국문학사에서 양적인 면에서 방대함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깊이를 아울러 확보한 작가라 할 수 있다.

소설의 배경은 해방 후 공출과정의 부당성과 폭력성 때문에 농민들의 자연발생적 봉기로 나타난 ‘10월 인민 항쟁’이다. 농민 항쟁에 심리적으로 동조하고, 농민들의 승리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작가의 입장을 드러낸 소설로 볼 수 있으며, 우리 신문학사상 진지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은 열세 살 소년 “바우를 초점화자로 내세움으로써 어린이의 인식적 한계를 역으로 활용하여, 해방을 전후한 역사적 현실의 부조리한 모순을 더욱 극명하게 포착하는 효과를 발하고 있다.”³⁾

본고에서는 집단적 움직임에 대한 형상화를 잘 이루었으며,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창조하려는 건강한 농민상을 보여준 작품 「황소들」에 대해 담화 기호학의 관점에서 현상학적 접근과 수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이론의 가능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II. 현상학적 접근

현상학은 주관성을 다루는 학문이므로 랑그를 연구하는 서사와 정념 기호학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았으나, 파를을 연구하는 담화 기호학에서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다. 풍타닐은 담화 기호학에서 의식 구조를 연구하는 현상학으로의 접근을 시도하여 기호학의 지평을 넓혔다. 현상학적 접근은 의미가 지각에서 드러나는 방법과 의미를 생성하는 방식, 그리고 세계에 대한 감각적 파악을 의미 세계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주체와 감각 세계 간 융합의 순간을 찾게 하는 감각 능력(esthésie),

3) 정수현, 『황순원 소설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76쪽.

시간과 공간의 최소 경험을 기술하게 해주는 현존 영역의 깊이 (profondeur)⁴⁾는 현상학적 분석의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상학은 인간의 의식 작용에 주목하는데, 의식은 한 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주체가 모르는 사이에 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황소들」에서 주인공 바우의 말과 목소리는 결국 침묵으로 나타나는데, 이 침묵은 의식 안에서 한 의식이 다른 의식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현상학적 침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작품은 소년 바우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의 흐름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접근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관점의 기점과 목표

「황소들」은 첫 단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로 시작하여 지주의 몰락에 대한 암시로 끝나는, 즉 하루 저녁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으며, 주인공 바우의 시선을 통해 농민 운동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첫 대목에는 텍스트가 지향하는 관점⁵⁾이 나타나 있는데, 관점이란

4) 단순히 지각되거나 느껴질 수 있는 것이며, 측정할 수 있는 공간적 분리로 축소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메를로 뽕피는 깊이나 먼 곳과 같은 아득함의 지각 현상 ... 이야말로 가장 몸의 실존적 체험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넓이는 ... 인간의 개념적 사유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깊이와 같은 아득함은 사물 자체의 크기에 속하는 속성이 아니라, 사물에서 향하는 지각의 원근법과 관련이 있어서 몸의 지각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 수직적 깊이나 수평적 먼 곳에 대하여 아득함을 느끼는 지각은 넓이나 높이에 대한 지각과 다르다. (M. Merleau-Ponty, p.300 참고(김형효, 『메를로 뽕피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6, 166~168쪽에서 재인용))

5) 이것은 담화의 방향을 정하는데, 각 문장은 담화에서 관점이 제공하는 방향없이는 수용될 수 없다. 또한 관점은 랑그의 잠재적 문장 구조를 현동화하고 결정하여 담화 구조를 완전하게 만든다. 일정한 관점에서 이야기되지 않거나 기술되지 않은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야기할 때 일정한 관점을 드러내야 한다. 일정한 관점에서 어떤 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어떤 의미작용을 부여한 것이다. 텍스트에 어떤 관점을 실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특징짓는 지각의 인식론적 행위 덕분이며, 결국 의미를 감각적인 것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émiotique et littérature, Op. cit., p.43 참고)

지각 활동을 전제로 하며 담화 방향을 조절하고 담화 의미작용 전체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풍타닐은 관점에 대한 이러한 정의가 불충분하여 담화 방향의 문제가 작가나 행위자의 주관성 문제로 환원되기 쉽기 때문에, 관점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안하는 관점에 대한 기호학적 정의는 통사적이고 의미적 구조인 행위소와 특성에 기반을 둔다. 하나의 관점을 선택한다는 것은 두 개의 기본 행위소를 설정하는 것인데, <기점(source)>과 <목표(cible)>이다. 이로써 앞의 직관적 정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주체의 방향은 하나가 아니라 두 입장(기점과 목표)의 방향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관점은 기점과 목표의 조절(réglage) 안에서 정해진다는 것이며, 위치 행위소(actants positionnels)⁶⁾라 부른다.⁷⁾

주체 바우는 자신이 지각하는 것의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는 중인데, 아버지인 대상에게서 무슨 일의 도래(농민의 봉기)를 지각하고 있다. 주체가 무엇인가를 지각한다는 것은 외적 상황과 내면적 의향이 살아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텍스트의 첫 대목은 주체의 지각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 있다.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인다. 이 밤 안으로 아버지에게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황소들』, 『황순원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2014, 89쪽)

텍스트는 바우라는 3인칭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초점을 바우에게 고정함으로써 1인칭의 효과를 획득하고 있다. 첫 문장은 통사적 주체 바우의 독백으로, 그는 내포적 발화 주체(sujet d'énonciation

6) 담화 기호학은 힘의 논리(logique des forces)와 위치의 논리(logique des places)에 따라 변형 행위소와 위치 행위소를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사태를 변형시키는 힘에의 참여를 통해 규정되며 담화의 방향성과는 무관하다. 반면에 후자는 담화의 방향성을 보장함으로써 문채를 형성하는 작용을 책임진다. (J. Fontanille,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1999, pp.168~169 참고)

7) *Sémiotique et littérature, Op. cit.*, pp.44~45 참고.

implicite)이다. 여기에서 관점의 <기점>은 주체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그가 무슨 일에 대해 알려고 하므로 <목표>는 무슨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일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며 작품은 시작된다.

텍스트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는 사건의 외부에 있다기보다 주체 바우의 눈을 통해서만 이야기 속의 사건을 보고 듣는다. 주체는 외부적(듣다, 보다), 내부적(생각하다)으로 지각활동을 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오늘 아침 아버지의 말과 행위 즉, ‘아버지가 어머니보고 오늘 날짜를 물어보신 것’, ‘오늘 초저녁에는 달이 없겠군 하신 것’, ‘저녁 때 연거푸 담배를 피우시며 날짜를 다시 물어보신 것’, 그리고 ‘심상치 않은 아버지의 얼굴’에 대한 지각을 <포착>하고 있다.(89쪽)⁸⁾ 이에 대해 주체는 내부적으로 대상인 ‘아버지가 긴장을 하고 계시다는 것’, ‘신경이 예민해 있다는 것’, ‘오늘 안으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 같은 기미’(89쪽)에 대한 지각을 <지향>하고 있다.

2. 지향과 포착

지각하는 신체는 담화 현동태(instance de discours)⁹⁾의 첫 활동인 위치 결정(prise de position) 덕분에 두 면의 경계를 정한다. 위치 결정은 표현면(외수용적 세계)과 내용면(내수용적 세계)의 경계를 정하는데, 주의의 흐름을 이끌고 방향 지시하는 <지향(visée)>과 변별적 영역을 정하는 <포착(saisie)>으로 굴절한다. <지향>과 <포착>을 연결하는 것은 신체의 자기수용적 지각이며, 이러한 기본 조작 덕분에 의미작용이 지각으로부터 생길 수 있다.

8) 황순원, 같은 책의 쪽수.

9) 화자가 랑그를 파롤로 실현하여 나타나게 하는 것(활동)을 가리킴. 방브니스트는 담화를 일종의 활동으로 지칭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담화의 관점에서 활동은 발화행위(acte d'énonciation)를 말함.

바우가 집까지 와 보니 과연 안마당 어둠 속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닌가. 봐라, 분명 무슨 일이 있지 않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린다.

...

바우는 문득 작년 가을 **할머니가 돌아갔을 적** 일이 생각난다. 그때도 동네 사람들은 안마당에 모여 웅성거렸다. 그러나 그때는 모인 사람들이 저렇게 사뭇 조심성 있게 수군거리진 않았다. 하기는 오늘 밤 일어날 일이 할머니가 세상 떠난 것보다 더 큰일이니까. (90쪽)

위의 인용문에서 주체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자 할머니 장례식 날 기억이 의식 표층에 떠오른다. 주체는 시각을 통한 분리작용(débrayage)¹⁰⁾으로 과거를 기억하는데, ‘동네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외부 세계를 지칭하는 표현면이고, ‘할머니 장례식 날’은 내부 세계를 지칭하는 내용면이며, 두 면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은 지각하는 신체이다. 그리고 표현면과 내용면 사이의 분배를 결정하는 위치 결정은 지향(visée)과 포착(saisie)으로 굴절하는데, ‘동네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포착된 것이고, 감각능력에 의해 주체 내부에서 지향된 것은 ‘할머니 장례식 날’이다.

이렇게 무의식적 기억은 우리의 과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 기억의 창조적 힘은 시각에 의해 촉발된 무의식적 기억으로 주체를 잃어버린 과거와 대면하게 한다. 과거 사실의 기억이 대부분 현재에는 별로 유용하지 않아서 의식 표층에 떠오르지 못하지만 우리 내부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느끼는 우연한 감각 덕분에 이런 기억이 되살아나 과거의 실재 세계와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다.

주체의 잠재의식 속에 묻혀 있던 과거 기억이 의식 표면으로 솟아오르는데 곧 이어 이 흐름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텍스트에서는 현재 의식과 과거 의식이 동시에 현존하는데, 현재의 삶에 과거의 삶을 겹쳐놓아 공존하게 하여 독자가 일시에 두 가지를 경험하게

10) 담화 연쇄에서 주체가 가상체로 빠져드는 작용.

한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에서 ‘충주 가는 길’에 대한 회상은 세 번 나오는데, 주체에게 ‘충주 가는 길’은 충주 가는 길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이 주체의 눈앞에 드러날 때 그 모습은 끊임없이 생동하고 주체를 엄습하고 사로잡는다. 충주라는 동일한 공간 반복이 소설의 유기적 결합에 작용하여 주체의 의식 흐름에 현장감을 준다. 첫 번째 ‘충주 가는 길’에 대한 회상을 보면,

이런 아버지가 그 몹쓸 때에 허리를 상한 뒤부터는 통 움쩍을 못한다. 사실 그것은 무시무시한 매질이었다. …이런 뒤에 왜순사는 혼자 잘 일어 나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이끌고 충주로 들어갔다. 바우는 차마 오금이 자려 아버지가 끌려가는 것을 동구 밖까지도 따라가 볼 수조차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자기가 가만 있던 것이 바보였다. 치를 떨고 보고만 있었다니!

그러니까 오늘 밤 자기는 집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함께 가야 한다. (92쪽)

위의 텍스트에 언급된 것처럼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다 하여도, 그에 대한 기억은 과거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작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매질이 과거에 일어난 것일지라도, 지금도 아버지의 허리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주체 바우는 그 상처에 대한 의미작용을 현재로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체가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보존된 지각이 현재 의미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보존된 지각은 실존하기를 계속하고 있고 언제나 현재에 속한다.

따라서 지각에 다시 나타난 과거 사건은 과거의 것으로 추억되기보다, 오히려 과거를 알려 주는 현재 사실로 우리에게 의미화한다. 주체의 의식에서 과거와 현재는 고유 영역을 갖고 있지 않고 서로 상호성을 갖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영상처럼 서로 엉켜 있다. 그에게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침식되어 있고

미래는 존재하게 될 것이며 이미 현재 속에 관심 영역으로 등록되어 있다. 주체에게 현재는 과거 지향(rétention)과 미래 지향(protention),¹¹⁾ 기억과 기대의 맥락 속에서 경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체는 오늘 밤에는 지난밤처럼 절대로 가만있지 않고 꼭 아버지를 따라 충주에 갈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텍스트는 해방 전후의 혹독한 공출 때문에 고통 받는 아버지를 구하고자 하는 소년 바우의 내면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번째 회상은 해방 후 밀 보리 공출이 미납된 이유로 경찰에게 총대로 어깨를 맞고 끌려가던 춘보와 관련된다.

이제 길은 외곽 **충주**로 잇닿았을 뿐, 이때 바우의 눈앞에는 그 **무서운 총대**가 떠올랐다. 뒤이어 그것이 어둠속을 통해 쏜살같이 내리쳐졌다. 춘보의 어긋죽지 위로, 밀 보리 공출이 미납된 탓이었다. …춘보는 종내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춘보의 눈에 빛나는 게 있었다. 눈물이었다. 그리고는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마치 꿈틀거리듯이. 이 꿈틀거림은 춘보의 몸에서만 아니고, 그때 모였던 모든 동네사람들에게서, 바우 자기의 몸에서도 일시에 일어났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뿐이었다. 사내는 이것도 전의 바우 자기 아버지 처럼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춘보를 이끌고 충주로 들어갔다. (96~97쪽)

주체 바우는 충주 가는 길로 들어서자마자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무서운 총대가 눈앞에 떠오르며, 그것이 춘보 어깨 위로 내리쳐졌던 기억이 현재로 의미화하여 의식 표층에 되살아난다. 이 경우 주체는 무의식적 기억을 떠올리는 여러 가지 감각들 중에서 시각을 통한 분리작용으로 옛 기억을 떠올린다. 이것은 시각에 의한 기억의 재생력이며, ‘충주 가는 길’은 외부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면이며, 주체의 기억에 떠오르는 ‘무서운 총대’는 내부세계를 가리키는 내용면인데, 동질의 긴장적인 기호학적

11) 과거 지향과 미래 지향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전자는 과거에 대한 현재의 의식 작용을 말하며 후자는 미래에 대한 현재의 의식 작용을 의미한다.

공간을 구축하면서 두 면을 연결하는 것은 지각하는 신체이다. 또한 표현면과 내용면의 경계를 정하는 위치 결정은 지향과 포착으로 굴절하는데, 표현면인 ‘충주가는 길’은 포착된 것이고, 내용면인 ‘무서운 총대’는 지향된 것이다.

위의 대목에서 ‘온 몸을 떨기’는 어떤 대상 앞에서 순간적인 반응으로 육체나 정신의 나약함이나 새로운 충격 안에서 흔들림이다. 이 떨림은 불의에 대한 분노뿐 아니라 두려움과 관련되는데, 떨림이 있는 후에는 집단적 저항의 힘을 내포한 ‘꿈틀거림’으로 계속 변화되어 나타난다.

“아니, 그뎁에두?”

이런 입안 소리와 함께 **김대통 영감의 저고리 소매가 자르르 떨린다**. 그 크디 큰 대통이 몇 번 촛불에 번뜩인다. 그러는 김대통 영감은 지금 자기가 들고 있는 촛불을 어떻게 처치해야 좋을지 몰라 하는 것 같았다. (108 쪽)

위의 인용문에서 ‘김대통 영감의 저고리 소매가 떨린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항상 소작인들만이 떨림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부유한 지주 김대통 영감 자신이 떨림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변혁의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하고 있다.¹²⁾

12) 주체에게 과거에 충주 가는 길과 오늘 밤 충주 가는 길은 서로 대립된다. 과거에 순하고 가난했던 농민들이 성난 황소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것을 이분법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과거에 충주 가는 길〉	〈오늘 밤 충주 가는 길〉
떨림	꿈틀거림
시련과 짓밟힘	자유와 일어남
총대로 차단됨	새로운 지향으로의 열림
유순한 소	성난 황소

III. 수사학적 접근

담화 기호학에서 수사학적 접근은 발화행위 이론과 직접 관련되며, 수사학의 문채(figures)와 전의(tropes)가 발화행위의 지배를 받는다. 기존의 수사학적 분석에서 원형 의미소(archiséme)나 문채에 대한 유형적 접근은 평면적 의미 분석으로 역동적인 관점이 부족하다. 그래서 문채를 생산하는 작용이나 형상적이고 수사학적 전략을 담화에서 추출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황소들」에 등장하는 다음 대목을 살펴보면,

그 도수장에 걸린 쓸개주머니 같다는 코와 (이것은 김대통 영감이 듣지 않는 데서 동네 사람들이 몰래 하는 말이다), 그 언제나 손에서 놓아보지 않는다는 크디 큰 대통이 달린 담뱃대는 보지 못한다. (100쪽)

위의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두 의미 규모(쓸개주머니와 코)에 공통되는 원형 의미소 /볶음/, /길게 늘어짐/을 우선 추출한다. 은유에 내재된 자질의 지표는 감각적이고 지각적이다. ‘쓸개주머니’와 ‘코’에 공통되는 원형 의미소 /볶음/과 /길게 늘어짐/은 시각적 지각인데, 이는 담화 형태가 활성화하는 특별한 시각적 지각이다.

이러한 기존의 분석과는 달리, 담화 기호학에서는 수사학적 차원을 발화의 문제로 다루면서, 발화체와 발화행위의 분석이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깊이 있는 입체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1. 위치장(champ positionnel)

위치장은 주체가 세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말하는데, 위치장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행위소를 위치 행위소라 한다. 위치 행위소는 의미작용 출현에 선행되는 규칙과 방향성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이 행위소는 위치장에 이미 자리를 점유하고 있지만, 현존의 강도와 범위, 지

평의 가깝거나 먼 거리를 느끼기만 할 뿐이다.

지각 구조의 위치 행위소는 <기점>, <목표>, <통제> 행위소를 말한다. 위치 행위소의 역할은 술어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담화의 방향성에 의해 규정된다. 그래서 위치의 역할은 발화의 역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예로서 아폴리네르(Apollinaire)의 시 ‘알코올(Alcools)’을 들 수 있다. 이 시에서 발화에 의해 정해진 <나>와 <너>가 위치 행위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뀌는데, <나>는 목표가 되고 <너>는 기점이 된다.¹³⁾

수사학의 문채는 두 담화 규모 즉, 인지된 단계(degré conçu)와 지각된 단계(degré perçu)로 이루어지며, 문채를 생산할 때 인지된 단계는 기점, 지각된 단계는 목표가 된다. 이렇게 문채는 기점 현동태(instance source)와 목표 현동태(instance cible)를 맺는 작용으로 생성된다. 모든 담화는 기점과 목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둘 사이는 지향성(intentionalité)으로 방향지어지고 유도된다고 할 수 있다.

위치 행위소에는 기점과 목표 외에 통제 행위소(actant contrôle)가 있으며, 통제 행위소는 조정장치, 여과장치, 장애물(obstacle)로 실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장애물은 인용문에서 ‘코’를 ‘쓸개주머니’에 비유하는 은유와 같이 단순한 의미적 차이일 수도 있고, ‘의자에 앉은 사람’ 대신에 ‘의자’라고 말하는 환유처럼 행위소적 차이가 될 수도 있다.

환유는 위치 행위소의 이동과 관련되는데, 행위소 주체에서 행위소 대상으로 담화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다. 텍스트에서 환유의 사례를 들어 보면,

해방 전해 겨울 그 **몹쓸 매**를 맞은 뒤부터 아버지는 허리를 잘 못 쓴다.

...

사실 그것은 **무시무시한 매질**이었다. ... 네놈이 공출은 아니하고 씨름은 잘 한다지? (92쪽)

13) *Sémiotique du discours*, Op. cit., p.162 참고.

이때 바우의 눈앞에는 그 **무서운 총대**가 떠올랐다. 뒤이어 그것이 어둠 속을 통해 쏟아져 내리쳐졌다. 춘보의 어긋죽지 위로. 밀보리 공출이 미납된 탓이었다. (96쪽)

위의 인용문에서 발화체 주체(몹쓸 매, 무시무시한 매질, 무서운 총대)가 문체의 기점이 되고, 발화체 대상(혹독한 공출)이 문체의 목표가 된다. ‘몹쓸 매, 무시무시한 매질, 무서운 총대’와 ‘혹독한 공출’은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전자를 생각하면 후자가 즉시 머리에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위소 주체에서 행위소 대상으로 담화 중심을 이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장애물은 ‘몹쓸 매, 무시무시한 매질, 무서운 총대’와 ‘혹독한 공출’의 차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통사적 위치 행위소를 제시함으로써, 수사학적 차원에서 담화 방향성의 통제를 전보다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2. 수사도식 세 단계

퐁타닐은 앞에서 살펴본 <기점>과 <목표> 행위소를 바탕으로 표준수사도식 세 단계, 대치(confrontation), 지배(domination), 해소(résolution)를 제시하고 있다. 첫 단계 대치는 기점과 목표인 두 규모, 두 의미 영역의 현존화(mise en présence) 순간이다. 둘째 단계 지배는 담화 현동태가 두 규모에 대해 한 가지로 입장을 정하는 순간인데, 더 강하게 수용된 것이 선택되어 지배된다. 셋째 단계 해소는 갈등의 결과로서 두 규모가 공존하게 되는 방식이다. 수사도식 세 단계를 긴장과 관련하여 알아보면, 첫 단계 대치는 긴장을 일으키고, 둘째 단계 지배는 긴장 강도를 높이며, 셋째 단계 해소는 긴장 완화를 가져온다.¹⁴⁾

텍스트는 ‘바우’라는 소년 인물의 시선을 통해 농민의 폭동을 형상화하고 있다. 「황소들」이라는 제목은 독자로 하여금 작가의 창작적 의도를

14) *Sémiotique et littérature, Op. cit.*, pp.96~99 참고.

유추하게 하는 은유라 할 수 있는데, 유순한 소들이 아니라 성난 황소들, 즉 성난 사람들을 가리킴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작가는 은유를 통해서 강렬한 인상을 두드러지게 하여 건조한 서술체 형식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수사도식 세 단계를 텍스트에 적용하여 분석해 보면,

아버지와 동네사람들은 아무 말들이 없다. 발소리만이 들릴 뿐, 그것은 사람이 여럿 가는 것이 아니고 뒷사람은 앞사람을 묵묵히, 앞사람은 그 앞사람을 또 묵묵히 따라 마치 소들끼리 줄지어 밤길을 가는 것만 같다. 그것도 꼭 다른 소 아닌 **황소들**끼리. (94쪽)

고함 한마디면 저기 앞서 가는 **황소** 같은 동네사람들이 달려와 줄 텐데. (95쪽)

건너편 언덕에 닿자 동네사람들은 또 소처럼 말없이 길을 걷기 시작한다. (97쪽)

동네사람들이 울을 밀려 내려간다. **성난 황소들** 같다. 이 **성난 황소들**은 바우네 동네사람들뿐만 아닌 듯했다. (104쪽)

위의 텍스트에서 소설의 표제로 설정한 ‘황소들’의 의미가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아버지와 동네사람들’이 ‘황소들’로 비유되고 있다. 여기에서 표준수사도식의 첫 단계 대치는 ‘사람’과 ‘황소’에서 비롯되는 의미 영역의 차이에 있다. 사람은 /인간/이고 황소는 /동물/이므로 서로 대치된다. 위치 행위소 기점과 목표 중에서 전자는 황소이며, 후자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단계 지배는 기점과 목표 중에서 한 가지로 입장을 정하는 순간인데, 발화행위가 선택한 지각적 입장의 결과를 말한다. 여기서는 목표인 /인간/ 영역의 동위성 보다는 기점인 /동물/ 영역의 동위성에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 보장된다. 셋째 단계 해소는 해석자

로 하여금 유추적 변형을 이용하여 /인간/ 영역에서 /동물/ 영역으로 이동할 것을 제시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동네사람들’인 /인간/ 영역은 ‘유순한 소가 아니라 성난 황소’인 /동물/ 영역이 제시하는 감각적이고 직관적 내용을 수용한다고 할 수 있다.

주체 바우가 동네 어른들에게 들은 ‘황소와 호랑이의 싸움 이야기’는 유순한 소가 위협에 처해 호랑이를 상대로 싸워 이긴 이야기로, 지주를 상대로 항쟁하여 이기는 소작인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황소들」은 이렇게 인간을 동물의 특성에 적절하게 비유하여 등장인물을 묘사하는데 성공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애의 말이, 소를 먹이며 서있으려니까 별안간 소가 자기를 뿔치기에 소한테 밟혀 죽는가보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 틈에 왔는지 **호랑이** 한 마리가 이리 변쩍 저리 변쩍 소잔등을 넘어다니며 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적마다 소도 이리저리 몸을 피해 돌아가는데 자기는 조금도 밟지를 앓더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소가 어떻게 **호랑이**를 받아 죽였는지 소가 달아나기에 보니까 **호랑이**는 배가 터져 죽어있더라는 것이다. (95쪽)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소는 순한 농민을 비유한 것으로, 순박하고 건강한 ‘농민’이 호랑이와 싸워 이긴 ‘소’에 비유되고 있다. 이 경우 소는 기점 현동태이고, 농민은 목표 현동태라 할 수 있다. 수사도식 첫 번째 단계에서 기점 현동태와 목표 현동태는 공유된 특성(순한 기질)을 바탕으로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인 /동물/ 영역과 농민인 /인간/ 영역 중 전자의 동위성에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 부여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목표 현동태인 농민은 기점 현동태인 소의 감각적, 직관적 특성을 부여받아 그와 비슷한 존재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호랑이’와 ‘악덕 지주’를 분석해 보면, ‘배가 터져 죽은 호랑이’는 ‘몰락한 지주’에 비유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주의 집을 습격하는 가난한 농민들 모습이 호랑이에게 달려드는 성난 황소 이미지로 그려지면서, 농민들이 지주의 부당한 횡포에 대항하는 집단 운동의 성패가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로 그때다. 별안간 저 아래 충주거리의 **전등불이 온통 꺼진 것은**. 그리고 이 전등불 꺼지기를 기다리고나 있었던 것처럼 외딴 **동네사람들이 일어선 것은**. 바우도 저도 모르게 제 작대기를 집어 들고 일어선다. (104 쪽)

김대통 영감은 비로소 생각난 듯 촛불을 입 앞에 당기어다가 혁혁거리는 입김으로 분다. **늘어진 코끝이** 마지막으로 빛나고 껌뻑 불빛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거기에는 다시는 그 흔들거리는 손도 그 크디 큰 대통도 없었다. (108쪽)

첫 번째 인용문에서 ‘전등불이 꺼진 것과 동시에 동네 사람들이 일어난 것’과 두 번째 인용문에서 ‘늘어진 코끝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은 김대통 영감의 ‘몰락’이 도래함을 표현하는 환유이다. 전자(‘전등불이 꺼진 것~’ 과 ‘늘어진 코끝이~’)는 문채의 기점이 되고, 후자(‘몰락’)는 문채의 목표가 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153쪽 참고) 환유는 행위소 주체에서 행위소 대상으로 담화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며, 전자와 후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자를 보면 후자가 연상된다는 것이다. 작가는 악덕 지주의 횡포가 소작인들의 폭동을 일으켰음을 함축적으로 암시해주며, 지주의 몰락으로 소설의 막을 내린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황순원의 단편소설 「황소들」을 담화 기호학의 관점에서 현상학적 접근과 수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상학은 인간의 의식작용에 주목하는데, 의식은 한 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주체가 모르는 사이에 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황소들」은 주인공 소년 바우의 의식의 흐름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접근으로 알아보았다.

퐁타닐은 관점에 대해 기존의 직관적 정의를 수정하였는데, 통사적이고 의미적 구조인 행위소와 특성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재정의하였다. 하나의 관점을 선택한다는 것은 두 가지 기본 행위소(기점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며 위치 행위소라 부른다. 지각하는 신체는 담화 현동태의 첫 활동인 위치 결정 덕분에 표현면(외수용적 세계)과 내용면(내수용적 세계)의 경계를 정하며, 지향과 포착으로 굴절한다. 이러한 개념장치와 분석도구를 「황소들」에 적용하여 담화기호학적 분석의 가능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수사학적 접근에서는 기존의 분석과 달리 발화의 차원에서 다루면서, 발화체와 발화행위의 분석이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깊이 있는 입체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주체가 세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위치장이라 하며, 위치장의 행위소를 위치 행위소라 한다. 지각 구조의 위치 행위소는 기점, 목표, 통제 행위소를 말한다. 퐁타닐은 기점과 목표 행위소를 바탕으로 수사도식 세 단계(대치, 지배, 해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도식을 비유법이 많이 표출된 텍스트에 적용하여 상기와 같이 그 가능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결론적으로 담화 기호학에서는 의미작용 세계를 일종의 실천으로 간주하며, 구조에 대한 관심을 작용과 행위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택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기호학의 지평을 확대하였으며, 이제까지 많이 연구되지 않은 감각과 지각, 발화행위와 발화작용에 다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앞으로 이 이론을 다른 작품에도 적용하여 담화 기호학의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 _____, 『기호, 리듬, 우주』, 인간사랑, 2007.
- 김형효, 『메를로 뵈띠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6.
-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 서재원, 『김동리와 황순원 소설의 낭만성과 역사성』, 월인, 2005.
-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민음사, 1998.
- 정수현, 『황순원 소설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 한국기호학회, 『정념의 세계와 기호학』, 가을학술대회, 2010, 11, 6.
- _____, 『신체 인문학의 새로운 지형 : 몸, 감각, 미디어』, 봄철국제학술대회, 2013, 4, 28.
- _____, 『소쉬르 사상의 인문학적 유산』, 가을학술대회, 2013, 11, 2.
- 홍정표, 「정념의 기호학과 담화 기호학의 상호보완적 고찰」, 『기호학 연구』, 제28집, 한국기호학회, 2010, 283~319쪽.
- _____, 「담화 기호학 연구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37집, 한국기호학회, 2013, 303~336쪽.
- _____, 『정념 기호학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 _____, 「김승옥의 『서울의 달빛 0장』에 대한 담화 기호학적 분석」, 『기호학 연구』, 제48집, 한국기호학회, 2016, 225~248쪽.
- _____, 「담화 기호학의 긴장구조 -선우휘의 『불꽃』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52집, 한국기호학회, 2017, 191~216쪽.
- 황순원, 「황소들」, 『황순원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2014.
- Arrivé, M., *Linguistique et psychanalyse*, Klincksieck, 1987. (최용호 옮김, 『언어학과 정신분석학』, 인간사랑, 1992).
- Benveniste, 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Gallimard, 1966.
- _____,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Gallimard, 1974.
- Fontanille, J., *Les espaces subjectifs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 de l'observateur*, Hachette, 1989.
- _____, *Sémiotique du visible*, P.U.F., 1995.
- _____, *Sémiotique et littérature*, 1998. (김치수·장인봉 옮김, 『기호학과 문학』,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 _____.,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1999.
- _____., *Soma et Séma, figures du corps*, Maisonneuve & Larose.
- _____., “Sémiotique des passions”, in Anne Hénault, *Questions de sémiotique*, PUF, 2002.
- _____., *Pratiques sémiotiques*, PUF, 2008.
- _____., *Corps et sens*, PUF, 2011.
- Géninascas, J., *La parole littéraire*, Paris, PHF, 1999.
- Greimas, A. -J.,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 _____., *Du sens II*, Paris, Seuil, 1983. (김성도 옮김, 『의미에 관하여』, 인간사랑, 1997)
- _____., *De l'imperfection*, Panlac, 1987.
- Greimas, A.-J. & Courtés, J.,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Hachette, 1979.
- Greimas, A. -J. & Fontanille, J., *Sémiotique des passions, Des états de choses aux états d'âme*, Paris, Seuil, 1991. (유기환, 최용호, 신정아 옮김, 『정념의 기호학』, 강, 2014)
- Hébert, L., *Dispositifs pour l'analyse des textes et des images*, PULIM, 2009.
- Hénault, A., *Les enjeux de la sémiotique*, Paris : P.U.F., 1979. (홍정표 옮김, 『기호학으로의 초대』, 어문학사, 1997)
- _____., *Narratologie - Sémiotique générale*, Paris : P.U.F., 1983. (홍정표 옮김, 『서사, 일반 기호학』, 문학과지성사, 2003)
- _____., *Histoire de la sémiotique*, coll. Que sais-je?, Paris : P.U.F., 1992. (박인철 옮김, 『기호학사』, 한길사, 2000)
- Hjelmslev, L., *Prolégomènes à une théorie du langage*, Editions de Minuit, 1971.
- Merleau-Ponty, M.,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45. (류의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A discourse semiotics analysis on Hwang Sun-won's short story "Bulls"

Hong, Jeong-Pyo

In 1999, the French semiotician Jacques Fontanille published his work on discourse semiotics as an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tructuralism.

Discourse semiotics has expanded the realm of semiotics by tak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hat examines the structure of consciousness. Phenomenology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operation of human consciousness, which, instead of staying put, moves from one place to another—unbeknownst to its agent. This paper examines “Bulls” through a phenomenological approach as the short story depicts the stream of consciousness that unfolds within the inner world of Pau, the young male protagonist.

The rhetorical approach to literary analysis works at the level of the speech act and directly relates to speech act theory. In rhetorics, figures and tropes are dominated by speech acts. Whereas conventional rhetorical analysis lacks a kinetic perspective as it revolves around flat semantic inspections, the discourse semiotics approach applied in this paper allows for an indepth multidimensional analysis where the analyses of *énoncé* and *énonciation* complement each other.

Presenting a peasant movement to the reader through the eyes of the young male protagonist Pau, “Bulls” is considered a significant literary feat in the history of Korea's New Literature as the work is highly regarded for its impressive depiction of a communal movement. This paper reinterprets and reevaluates the story under a new light, mainly through a rhetorical approach and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hat hinges on discourse semiotics.

Keywords : source, depth, instance of discourse, target, positional field, positional actants, obstacle, aim, control, capture, setting in the presence

투고일 : 2018. 08. 21. / 심사일 : 2018. 09. 04. / 심사완료일 : 2018. 09. 10.